

신작으로 돌아온 봉테일



28일 개봉하는 봉준호 신작 '미키17'. 로버트 패틴슨이 복제 가능한 소모품 인간 '익스펜더블'이라는 설정으로, 익스펜더블이 죽고 사는 모습을 통해 인류가 처한 착취 구조의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사진 워너브라더스>

오동진 영화평론가 ohdjin11@naver.com

# '미키 17' 봉준호 월드의 완성

28일 개봉하는 봉준호의 신작 '미키17'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봉준호가 전작 '기생충'(2019)으로 65년 만에 칸과 아카데미를 동시 정복한, 세계에서 가장 핫한 감독이란다. 지난 15일 베를린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 '미키17'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갈린다. 거대 할리우드 자본(제작비 1억5000만 달러, 한화 약 2164억원)이 투입됐으나 스펙터클보다 사람 냄새가 방점이 찍히는 SF영화에 호평이 우세하지만, 영국 BBC가 평점 40점을 주고 가디언지의 유명 평론가 피터 브래드쇼가 별점 셋(브래드쇼는 '리얼 페인'과 '아노라'에는 별 다섯 개를, '브루탈리스트'와 '서브스틴스'에는 네 개 반을 줬다)을 줬을 때 국내 영화계가 살짝 긴장했다. 그러나 17일 국내 시사화 반응은 달랐다. '미키17'은 봉준호 월드의 완성이라 할 만하다.

2000년 '플란다스의 개'로 데뷔한 봉준호는 한국에서 가장 사회과학적 이성의 논리와 두뇌가 발달한 천재형 감독이다. 직관적이고 탐미적인 면에서 고유영역을 구축한 박찬욱이나 본능적이면서도 무정부주의적 세계로 마니아 층을 구축한 홍상수는 다르다. 그는 이미 신상옥·김기영·임권택의 뒤를 잇는 한국 현대영화사의 대표 감독으로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미키17'은 봉준호가 월드 와이드 감독임을 여지없이 보여 준다.

사람냄새 나는 SF에 호불호 BBC 평점 40점 '미키17'은 브래드 피트의 영화사 플랜B가 제작했고 워너 브라더스가 배급하는 영화다. 아마도 봉준호 스스로는 '기생충' 후속작에 대한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어떻게든 잘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든 흥행이 잘 되는 영화를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독들은 망작을 내놓거나, 비평이든 흥행이든 한쪽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봉준호는 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채는 능력을 보여 왔다. '살인의 추억'(2003), '괴물'(2006), '마더'(2009), '설국열차'(2013), '옥자'(2017), '기생충'(2019) 모두 단순한 상업영화라 할 수 없다. 수사학적으로 웰 메이드 예술영화, 상업적 예술영화 혹은 작가주의적 상업영화라고 부르기엔 적당하다. 작가주의 영화를 장르영화로 만들어 비평과 흥행 측면에서 매번 성공하고 있는 한국 영화감독으로는 봉준호가 거의 유일하다.

'살인의 추억'은 경기도 화성의 연쇄 살인범을 쫓는 두 형사의 얘기를 통해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1980년대 한국사회를 그려 단박에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다. '괴물'은 한강에 원인 모를 괴생물이 출현한다는 상상력으로 1300만 명의 관객을 모았다. 첫 할리우드 합작영화인 '설국열차'는 지구 멸망 후에도 계속되는 계급사회라는 설정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던졌고,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계급 문제를 그리면서 세계적 보편성을 얻었다. 여기에 '미키17'이 더해졌으니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다 할 만하다.

기본적으로 '미키17'은 매우 재미있으며 따뜻한

유머가 가득하고 신랄한 정치적 풍자와 날카로운 사회적 시각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봉준호는 능수능란하게 자유롭고 풍부한 세계사적 인식과 그 세계관을 마음껏 펼치고 있다. 그 어떤 세계의 관객이 보더라도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근미래의 세계로 치환시켜 감독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일화'다. 영화를 보면서 '아 저건 내 얘기군' 생각하는 순간 그 에너지는 폭발한다.

봉준호는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고 마틴 스코세지 감독을 추켜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게 바로 봉준호 월드의 핵심 키워드인데, '미키17'이야말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창의적이며 그래서 가장 사회·정치적인 영화다. 영화가 지녀야 할 가장 단순한 규칙, 곧 작은 우물에서 큰 바다로 나아가는 그 위대한 점증법의 서사를 보여준다. 위대한 예술은 지나치게 고매하지도 않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으며 가장 대중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법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미키17'은 근미래에 새로 발견된 행성을 우주식민지로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로 투입된 한 남자의 이야기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런 파견 노동자지만 주인공 미키 반즈(로버트 패틴슨)는 '익스펜더블'이라는 유일한 직책의 소유자다. 익스펜더블은 유전자 정보를 철저히 분석해 입력시켜 놓고, 기억도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죽이고, 재생하고, 죽이고, 재생해 내는 일종의 소모품 인간이다. 미래에는 이런 인간이 생겨날 수도 있다. AI시대이고 3D 프린터가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시대가 때문이다.

이것은 니플하임이라는 신 행성과 그 행성 위에 정거하고 있는 드라카라는 거대 우주 함선에서 더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미키1에서 미키17까지, 모든 미키는 드라카와 니플하임을 오가며 온갖 갖은 일, 사선을 넘나드는 일을 하며 죽었다 깬다를 반복한다. 우주선 생체실험실에선 미키로 하여금 우주선 밖에서 일부러 방사선에 노출되게도 하고, 니플하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도 하며, 행성의 원주민 격인 괴생물 크리커에게 공격당해 죽게 하기도 한다. 미키는 가혹한 노동과 생명의 착취를 당한다.

드라카는 마살이라는 이름의 독재자(마크 러팔로)가 지휘한다. 그는 지구의 대통령 선거에서 두 번 낙선하고, 지구 대신 우주 행성을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선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서 밀어질 거라고 내다 본 봉준호식 유머인데 마살은 트럼프에다 일론 머스크를 합친 캐릭터다. 마살 옆에

는 늘 귓속말로 '자기야, 세계 나가!'라고 속삭이는 아내 일파(토니 콜레트)가 있다. 이 사기꾼 정치인 부부는 우주선 내에서의 섹스를 금지하는가 하면 새로운 행성에서는 우량주 같은 인류만을 태어나게 하겠다는 식의 인종주의와 차별주의를 강제한다. 미키17은 우성생식과는 좀 달라 보이는 흑인여성 나사(나오미 아키)와 물래 연인 관계이며 약삭빠른 친구 티모(스티븐 연)와는 지구에서 가혹한 고문과 살인을 취미로 삼는 강패 두목에게 쫓겨 여기까지 같이 온 관계다. 티모는 지구에 있을 때 이제 햄버거 체인이 소멸하고 마카롱이 대세가 될 거라며 고리대금업자인 강패에게 미키 이름으로 거금을 대출한 상태다. '기생충'에서 대만 카스텔라가 유행하고 있다는, 봉준호식 자기 복제의 설정으로 현대의 코인 열풍을 비꼬는 대목이다. 어쨌든 미키는 17번째 재생되고, 18번째와 겹친다. 미키17은 겹맞고 소심한 성격이지만, 미키18은 독하고 자기애가 강하다. 이런 멀티플 상황이 되면 복제품이 아닌 본질 자체, 그러니까 미키 반즈 자체



봉 감독 특기 '사회과학 상업영화' 육자·기생충 등 현실 풍자 이어와 인간복제 다룬 미키17도 한 맥락 생체실험 위해 카피되는 미키로 계급사회 착취구조 통렬히 비판

를 제거시켜야 하는 게 우주시대의 법이지만 애인 나사는 셋이 함께 공존하고 싶어 한다.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우주 괴물 크리커와의 갈등이다. 미키17과 18은 크리커가 외모와는 달리 인간과의 평화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된다. 크리커의 작은 아이들은 마치 '옥자'의 돼지처럼 귀엽고 애교있는 행동도 하는데, 행성 정복에 눈이 먼 마살 일당은 두 미키에게 폭탄을 장착해 크리커를 멸종시키려 한다. 크리커를 살리고 행성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두 명의 미키와 나사는 마살 일당에 맞서 싸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 에드워드 애슈턴의 원작 '미키'는 AI시대, 인간 복제 시대와 우주 개척 시대에 있어 인간이 처하게 될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다뤘다. 인간의 세포는 차근차근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 가다가 어느 순간 몸 전체의 세포를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하기도 하니, 인간은 사실 모두 익스펜더블이며 10년 전의 자신

과 완전히 다른 나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걸 봉준호는 자본과 독재의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우주시대에조차 이어지는 양극화된 계급사회 문제를 논하는 영화로 바꿔 냈다. 미키7을 미키17로 늘려 10년 더 죽고 사는 모습을 통해 지금 인류가 처한 착취 구조의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미키7이 왜 미키17이 됐느냐는 소설과 영화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핵심이다.

봉준호는 사회·정치적 이슈를 전면에서 내세운 적이 없다. 한강의 괴물 출현이나 잘 키운 돼지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확장해 자본의 탐욕을 보여주고, 멸망한 지구에서 생존한 기차 안 사람들이나 반 지하 무저 가족의 기이한 사기행각을 통해 계급구조로 점철된 세상의 단면을 드러내는 쪽으로 확장해 왔다. '미키17'은 그 세계관의 결정판이자 봉준호의 미래사회 보고서, 현실사회 분석서의 완성이다. 단언컨대 이 영화는 두고 두고 세계 사회학 교과서로 회자될 것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